

〈괴물〉 같은 세상, 정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크 히어로의 사적 제재에 일광하는 드라마, 정의의 존재 이유를 묻다

이준목

배트맨이나 헐크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이른바 ‘다크 히어로(dark hero)’의 대명사로 꼽힌다. 빛과 어둠으로 상반되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세상의 법과 규칙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강력하고 위험한 악(惡)을 대신 응징하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범죄/스릴러 장르물이 늘어나면서, 어둡고 복잡한 정체성을 지닌 주인공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악당을 심판하는 악당’, ‘악마 같은 재판관’, ‘복수 대행자’, ‘프레데터(포식자)’, ‘괴물’ 등 그들을 지칭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은 결국 같은 캐릭터를 뜻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결과적으로는 선(善)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선불리 ‘영웅’이라고 미화하기에는, 사회질서나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함과 한계 또한 뚜렷하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대중은 모범적인 영웅보다도

입체적이고 통쾌한 면이 많은 다크 히어로에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다크 히어로가 필요한 세상이란 ‘우리 사회의 정의(正義, justice)는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크 히어로 비긴즈:

세상은 괴물을 창조했고, 괴물은 또 다른 괴물을 낳았다.

드라마 <괴물>의 서사 구조는 오늘날 한국형 다크 히어로의 기원과 배경,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괴물>은 만양이라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20여 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을 통해 사회구조의 문제가 개인의 삶과 관계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며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명한 사회고발성 스릴러다. 주인공 이동식은 20년 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지금은 경찰이 되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인물이다. 여동생의 실종을 계기로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라는 기구한 운명을 겪은 이동식은, 세상의 편견과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하여 스스로 ‘괴물’이 된다.

드라마는 초반부터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계속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인물로 묘사한다. 이동식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그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선한지 악한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는 한주원과 대치하는 장면에서 “사람을 죽였다”며 사악한 미소를 지어보이다가 금세 “농담이야, 왜 그리 진지한가”라고 말을 뒤집는 장면은,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혼돈의 상징이던 조커가 “Why so serious?”를 외치던 장면의 오마주다. 만양파출소 사람들이나 이동식의 주변 인물들도 모두 수상한 분위기를 풍

기며 저마다의 '가면'으로 본심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드라마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진짜 빌런들의 정체를 통하여 사건의 진실과 함께, 평범한 인물들이 잔혹한 운명에 휘말리며 뒤틀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조금씩 드러난다. 진짜 연쇄살인범 강진목을 비롯해 건설사를 운영하는 조폭 이창진, 이유연 사건의 숨은 범인 박정제와 그 모친이자 시의원 도해연, 한주원의 부친이자 차기 경찰청장 후보 한기환 등 관련자들은 서로가 밀접한 인연으로 엮여 있다. 이들은 문주시 재개발이라는 경제적 이권, 혈육에 대한 집착, 개인의 권력욕 등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여 운명공동체에 가까운 '카르텔'을 구축한다. 자연스러운 욕망의 흐름을 따라 수많은 인맥들이 촘촘히 연결되는 과정, 저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견고해진 공동체가 권력화되는 모습을 통해 '진짜 괴물'은 바로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자라난 본능적 이기심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런 거대화된 괴물들과 맞서야 하는 피해자-시민들의 연대는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이동식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지만 끊임없이 의심받고 견제당하며 소외된 아웃사이드이고, 그를 돕는 인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주인공 한주원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바로 아버지와 자신의 뼈아픈 치부를 스스로 들춰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서로 대립하던 이동식과 한주원은 진실을 위하여 힘을 합치지만, 정작 그들의 방식도 상대하는 악인의 수단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시체 유기, 증거 은닉, 도청, 거짓말 등 각종 부도덕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드라마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악당보다도 더 교활하고 악랄해져야만 했던 이동식과 한주원의 흑화를 통해, 바로 '괴물을 잡기 위하여 괴물이 되어가는' 다크 히어로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 불신이 부른 자기방어 본능

여기서 주인공의 ‘아치 에너미(arch enemy, 숙적)’라고 할 수 있는 악당들의 면면은, 곧 다크 히어로의 존재 이유를 대변하는 거울과 같다. 작게는 학교폭력을 일삼는 10대부터 잔인하고 지능적인 범죄자들, 재벌-정치인-언론인-법조인 등 사회 주류층, 심지어 국가기관과 대통령 같은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악당들은 평범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에 가깝다. 이들이 활개 치는 대한민국은 배트맨이 활약하는 고담시처럼, 법과 질서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한 절망의 디스토피아로 묘사된다.

〈빈센조〉에서 마피아 출신의 빈센조 까사노는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들을 심판한다”며 그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탈리아에선 마피아들만 마피아 짓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 경찰, 검찰, 기업 등 전부 다 마피아에 카르텔이다.”

〈모범택시〉에서 ‘복수대행업’을 표방한 무지개운수의 대표기사 김도기는 학교 폭력 에피소드에서 가해자들을 상대로 “어리다고 해서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는 일침을 통하여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제’의 모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식까지 세습되며 고착되어 가는 현대판 계급사회를 지적한다.

여기서 이들이 내세우는 심판론의 근거는 바로 공정-법치-도덕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부와 권력에서 나오고, 정의라는 가치는 오늘 날에는 허울뿐인 구호로만 남은 지 오래다. 그리고 많은 대중은 이러한 드라마 속 디스토피아에서 현실의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을 본다.

대한민국은 최근 촛불운동 - 코로나19 - N번방 사건 - 젠더 갈등 - 부동산 문제 - 좌우 진영 대결 등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체험했다. 변화와 개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여전히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선악과 정의를 가늠하는 보편적 기준 자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철학자 이진우는 『불공정사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갈등이 구성된 상호 간의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게 제도와 정치의 역할이지만, 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대중은 박탈감을 느끼고, 가치관의 혼란에 휩싸인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혼란스럽고 모호해진 정의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선악 구도가 단순화된 드라마 속 세계관에서 다크 히어로들은 현실의 다양한 사회악들을 상대로 '사적 제재'라는 대안을 통하여 쉽고 분명하게 정의를 구현한다. 사적 제재는 바로 힘에 의한 균형이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층간소음 - 데이트 폭력 - 학폭 가해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이가 만연하거나, '복수하는 요령'을 공유하는 내용도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극중에서는 갑질을 일삼는 회사 대표, 장애인을 착취하는 업주, 심지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당한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되돌려 준다. 법치 국가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방식이지만, 사회질서에 대한 동질감과 신뢰가 낮을수록 사적 제재에 관용적이기 마련이다. 약자를 보호할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사적 제재는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크 히어로는 대개 개인적이고 본능적이며, 명분이나 절차에 연

연하지 않기에 기존의 낡은 질서나 도덕 개념에서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들의 사적 제재에 동의하는 대중의 동경심은, 부조리한 세상일수록 나의 권리와 소중함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합리화로 귀결되며, ‘자기 방어 본능’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대신 구현해 주는 역할인 셈이다.

‘정의로운 사적 제재’라는 환상, 분노만 있고 희망은 없는 복수극

그런데 다크 히어로의 판타지란 애초에 그들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외부자’이거나,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워 기존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은 다크 히어로임에도 건강한 기성질서의 복원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사적 제재라는 방식으로 악인들을 응징하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도 자각하고 있기에,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질서를 수호하여 궁극적으로는 배트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소망한다.

하지만 한국형 다크 히어로들의 모순과 한계는 철학이 부재한 맹목적 자기 확신에서 발생한다. 〈빈센조〉는 주인공의 마초성과 나르시시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를 현존하는 최악의 범죄 집단인 이탈리아 마피아의 세계보다도 못한 인외마경(人畏魔境)으로 매도하는 왜곡을 저지른다. 가상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악마판사〉에서 강요한 이 진행되는 라이브 법정 쇼인 국민시범재판은 그 자체로 사법제도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위험한 상상력의 구현이다. 최후의 재판도 폭탄 테러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적 정의가 아닌 대중 선통

이라는 방식으로 조작된 판결을 유도한다. 염세주의적인 다크 히어로 들은 나약한 정의와 세상을 조롱하지만, 선악의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이나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스스로 경계하려는 의지는 결여되어 있다. 오로지 나보다 더 나쁜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분노’와 ‘혐오’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에 투영했을 때는 내로남불의 진영 논리로 변질되기 쉽다.

정작 사회구조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대중의 저항의식이나 성장, 깨어 있는 ‘집단지성’ 등의 대안적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조명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빈센조>의 금가프라자 패밀리가 범죄자 빈센조를 돕다가 아예 범법행위에게까지 적극 가담하며 ‘한국형 마피아’가 된 모습은, 마치 정치인·유명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실의 극성 팬덤과 다를 게 없다. <모범택시>의 현대판 노예와 학폭 사건, <악마판사>의 형산동 사건 등에서 극중 일반 시민들과 여론의 역할이란 그저 주인공의 선견지명과 의도된 기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가깝다. 대중은 나약하고 미성숙하기에 유능하고 현명한 엘리트가 선도해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선민의식과 전체주의라는 위험한 도그마를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루카, 더 비기닝>의 섬뜩한 결말은, 강력한 힘을 지닌 다크 히어로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흑화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준다. 지오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평생을 괴물 취급받으며 인간을 불신하게 된다. 연인인 구름의 죽음을 계기로 안전판이 사라진 지오의 분노는 ‘인류 전체에 대한 복수심’으로 옮겨 간다. 지오는 오히려 흑막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들을 탄생시키며 “홀로세(Holocene, 인류)는 끝났다”라고 선언한다. 지오의 관점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된 세상을 심판한 것이지만, 정작 구름이 원했

던 것은 지오가 끝까지 인간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마저 무의미하게 만들며 ‘진짜 괴물’로 전락해 버린 지오의 배신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나 〈테스노트〉의 아키라에 가깝다. 그들의 독선은 애초부터 ‘나만의 정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애정’이 부족할 때 벌어지는 다크 히어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자기 확신에 빠져 또 다른 빈센조나 강요한, 김도기를 자처하는 이들일수록, 정작 현실에서는 언제든 또 다른 지오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경고하는 순간이다.

정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반면 〈마우스〉는 정의로운 행동과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미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감정을 찾게 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정바름은 다른 다크 히어로들이 소홀하게 다루던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성찰하는 캐릭터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정바름은 평범한 인간의 뇌를 이식받은 이후 점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을 응징한다는 영웅심에 취해 있던 정바름은 기억을 되찾으며 본인의 실체를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극적 포장을 벗겨냈을 때 사적 제재란 그저 또 다른 범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짚어낸다. 또한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하필 연민과 죄책감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어떤 복수보다 잔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정바름은 수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환상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면서 “넌 더 이상 괴물이 아니야”라며 위로한다. 피해자

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는지는 열린 결말로 남았지만, 최소한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모든 잘못을 속죄하며 ‘인간다움’을 회복한 모습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작은 희망을 남긴다.

〈괴물〉에서 이동식은 모든 복수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자신 또한 그동안 저지른 죄를 고백하며 대가를 치르는 길을 선택한다. 한주원 역시 잘못을 속죄하고 이동식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이동식은 “젖값은 죄 지은 놈이 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주원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부탁한다. 선한 결과를 내세워 악한 과정까지 합리화하려는 독선에서 해방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투쟁은 ‘사적 제재를 통한 복수극’을 벗어나 ‘공공의 절차적 정의를 통한 권선징악’이라는 성격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철학자 마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타인을 위한 연민〉에서 ‘이행하는 분노(Transition Anger)’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양끝음에만 집착하는 ‘옹보적 분노’와 구별하여, 더 나은 상황으로의 개선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바름의 ‘속죄’와 이동식의 ‘용서’라는 선택은 바로 이행분노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때 흑화했다라도 완전한 괴물로 타락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은 오롯이 성숙한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메시지다.

악연이었던 이동식과 한주원이 진정한 화합에 이르는 결말도 일방향적인 관용이나 복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통의 목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과정을 거쳐,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분노를 함께 극복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상호 구원한 것이다.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최근 많은 드라마에서도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가 됐다. 당연히 정의는 분노나 복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절차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사회 비판을

명분 삼아 무분별한 사적 제재와 혐오까지 권선징악으로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잠시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현실과는 당연히 거리가 멀다. 오늘날 드라마가 가지는 사회적 메시지로서의 영향력을 감안해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분노와 복수를 넘어, 용서와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